

보도 일시	2022. 2. 25.(금)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2. 25.(금)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이남윤 (044-201-2236)

저장양파 출하연기 등 수급대책 추진

- 저장양파 20천톤 출하연기, '22년산 조생양파 44ha 출하정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년산 조생종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2월 기준) : (평년) 1,166원/kg → ('21) 1,901원 → ('22) 453(전년비 76.2%↓, 평년비 6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2월말 기준), 향후 4월까지의 전년산 재고 증가와 더불어 3월 20일경부터 출하되는 제주지역 조생종의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전년보다 약 8천톤, 평년보다 약 17천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조생 면적(KREI) : 제주 1,137ha(전년비 41ha ↑, 3.6% ↑), 전남 1,580ha(30ha ↓, 1.9% ↓)

* 조생종 : (평년) 2,863ha → ('21) 2,939 → ('22) 2,975(전년비 1.2% ↑, 평년비 3.9% ↑)

* 지역별 조생종 출하시기 : 제주(3.20일경 ~), 고흥(4월초 ~), 무안(4.20일경 ~) 등

다만, 양파 전체 재배면적은 중만생종 면적의 6.7%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17,521ha로 전망되어, 향후 기상 및 작물 생육상황에 따라 올해 전체 양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재배면적 : (평년) 19,949ha → ('21) 18,532 → ('22) 17,521(전년비 5.5% ↓, 평년비 12.2% ↓)

이에 따라 정부는 5월~6월 이후 출하되는 중만생종의 공급 전망을 고려하여, 조생종 출하시기(3월~4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장 양파의 출하 연기와 제주지역 조생종의 출하 정지를 시행키로 하였다.

저장 양파 출하 연기는 전년산 양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협에 대하여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여 총 20천톤을 5월 1일 이후 출하토록 하여 4월~5월의 공급 증가 영향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2월 28일까지 농가와 농협의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물량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조생종 출하 정지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제주지역에 대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면적 수준인 44ha(물량 환산시 약 3200톤 수준)에 대하여 출하를 정지하여 해당 물량만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으로 3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파 수급상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장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월과 4월에는 양파 공급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 “양파 수급대책 시행으로 금년도 양파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하면서 “금번 대책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